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6. 18.(금)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최성희(044-203-2711)	담당자	사무관 전주산(044-203-2724)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문학 빌리지’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국제 설계공모 당선  
- 2021년 하반기부터 설계 시행, 2022년 하반기 착공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건축가협회(회장 박제유)와 함께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주)코마건축사사무소, 이은석 공동 참여]의 ‘문학 빌리지(Munhak Village)’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문학진흥법」에 따라 한국문학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등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월)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국내외 총 53개 팀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6. 9.~6. 14.)를 거쳐 최종 당선작이 결정됐다.

\* 김용승(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임호균(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 교수), 김규린(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토머스 보니어(미국, 세계건축가연맹 회장), 루이 베케르(덴마크, 헤닝 라르센 대표), 이경훈(국민대 건축학부 교수, 예비위원)

당선작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의 ‘문학 빌리지(Munhak Village)’는 마을의 모습을 소재로 한 건물 외관과 문학 주제 공간, 작가 기념 공간, 수장공간, 교육·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된 내부를 관람객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인근 북한산과 은평구 예술인 마을 등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 2등은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와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더 플랫폼 오브 리터러처(The Platform of Literature)', ▲ 3등은 리트머스 건축사사무소와 플랭클린 아지(Franklin Azzi, 프랑스)의 '호리즌스(Horizons), 사색정원', ▲ 공동 4등은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와 허서구 건축사사무소의 '인그레이빙 더 마크 오브 리터러처 온 더 그라운드(Engraving the mark of Literature on the ground)',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의 '화이트 스페이스 오브 리터러처(White Space of Literature)'가 선정됐다.

문체부는 6월 29일(화)부터 7월 4일(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수상작을 전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설계 공모 공식 누리집(<http://www.nmkl-compe.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 이미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전준산(☎ 044-203-2724), 주무관 신영선(☎ 044-203-271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당선작: 「 Munhak Village 」

-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이은석, (주)코마건축사사무소

○ 그림 1



○ 그림 2



○ 그림 3



○ 그림 4

